“진우 스님과 미래불교 등불 밝힐 것”

불교리더스포럼, 10월 7일 축하만찬
진우 스님 “국민 마음 평안에 진력”
아시안게임 선수단장에 공로패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불교리더스포럼은 10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축하만찬’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조계종

재가불자 지도자들의 모임인 불교리더스포럼(상임대표 이기흥)이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종단 발전과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외호대중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불교리더스포럼은 10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축하만찬’을 개최했다.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제37대 총무원장 임기를 돌아보며 “지난 4년간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앞으로의 4년이 더 중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새 임기의 핵심 과제로는 ‘마음안보’를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물질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풍요로워졌지만,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명상은 시대에 맞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며 “지난 임기부터 힘써온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어릴 때부터 선명상을 통해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괴로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흥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진우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임기 동안 종단 발전과 불교계 성장을 이끌어온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상임대표는 “원장 스님의 깊은 원력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쉼 없는 정진 덕분에 불교리더스포럼을 비롯한 불교 단체들이 양적·질적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선명상 대중화의 성과를 언급하며 “선명상은 불교가 국민들의 삶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면서 “불교리더스포럼 회원들 또한 선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건강한 사회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교리더스포럼 회원들도 우리 사회의 불자 리더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외호대중으로서 맡은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원주 상임부대표도 축사에서 “지난 임기 동안 종단 안정과 발전 그리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제38대 집행부 슬로건 ‘세상의 평화를 함께 여는 미래불교’의 뜻처럼 불교 지혜와 자비가 우리 사회를 넘어 세상 곳곳에 더욱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건작 청와대불자회장은 “총무원장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국민 마음 치유에 앞장서 오셨다”며 “마음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사부대중을 대표해 이연화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수석부회장이 진우 스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제38대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했다. 또 진우 스님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장을 맡은 이상현 불교리더스포럼 문화예술분과 부대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반달스님’ 판매로 사찰림 연구기금 조성

국립공원공단, 1850만원 전달
사찰림 생태 · 문화 가치 보존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의 대표 굿즈인 ‘반달스님’과 ‘반달동자’ 판매 수익금이 사찰림 연구기금으로 조성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10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185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국립공원공단 캐릭터 ‘반달이’에 불교 가사와 동자승 복장을 더한 ‘반달스님’과 ‘반달동자’ 굿즈 판매를 통해 마련됐다. 조계종과 국립공원공단, 골든베어상사의 협업으로 제작된 해당 굿즈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만8500개가 판매됐다.

기금은 향후 국립공원 내 사찰림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연구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사찰림 연구사업으로 활용된다.

진우 스님은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돼 사찰림 등 사찰의 가치를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대영 이사장은 “최대한 많은 사찰이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이행으로 잇기 위해 국회 논의에도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조계종 총무부장 등 부·실장 유임

진우 스님, 10월 7일 임명
일자는 9월 28일 소급 적용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8대 총무원장 취임에 따른 후속 인사로 제37대 집행부에서 임명된 일부 부·실장 스님의 유임을 결정했다.

조계종은 “10월 7일 총무부장 정문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사회부장 진경 스님 등 6명을 유임했다”고 밝혔다. 임명일자는 제38대 집행부가 출범한 9월 28일로 소급 적용됐다.

호법부장 도심 스님도 유임됐다. 다만 도심 스님은 이미 중앙종회 인준을 받은 바 있어, 별도의 신규 임명 절차 없이 기존 직을 이어간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19대 종회 선거 15곳 경선

조계종 중앙선관위, 명부 확정
후보자 사퇴로 9곳 무투표 당선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15곳에서 경선으로 치러진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 이하 중앙선관위)는 10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39차 회의를 열고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자격 심사, 선거인 명부 확정, 위원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심담 스님의 입후보 자격을 재심사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심담 스님은 앞서 중앙선관위 심사를 거쳐 입후보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후 총무원 측에서 미등록 사설사암의 실소유자로 확인됐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호법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심담 스님의 입후보 자격을 다시 심사해 ‘자격 없음’으로 재결정했다.

후보자 가운데 사퇴서를 제출한 이들도 있다. 10월 8일 기준 직할교구 관태·주경 스님, 월정사 효림 스님, 법주사 현우 스님, 수덕사 정경 스님, 고운사 도륜 스님, 관음사 자경·향림·월공 스님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개 교구 가운데 15개 교구에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선출 정원과 같은 수의 후보가 등록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교구는 신흥사, 월정사, 직지사,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봉선사 9곳이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인 명부도 확정했다. 자격 이상자와 투표구 미신청자, 타교구 선거권 행사자 등을 제외한 최종 선거인 수는 직할교구 495명, 용주사 187명, 법주사 225명, 마곡사 129명, 수덕사 126명, 동화사 243명, 은해사 99명, 불국사 114명, 해인사 535명, 쌍계사 84명, 통도사 436명, 고운사 100명, 금산사 98명, 백양사 172명, 관음사 36명으로 결정됐다.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0월 15일 전국 교구본사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당선증은 10월 16일 전 교구에 일괄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선운사 주지에 경우 스님 임명

진우 스님, 10월 7일 임명장 수여
“교구 본·말사 안정적 운영 최선”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에 경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경우 스님에게 선운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여러 소임을 경험하고 다시 교구장으로 복귀하게 된 만큼 종단과 교구 발전에 더 많이 노력해 달라”며 “가람 수호와 대중 화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우 스님은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24교구본·말사가 화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우 스님은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을 위해 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해 의미를 더했다. 김내영 기자

일해당 덕민 대강백

선문염송 禪 특강

禪門拈頌



2026. 11.1 (일) ~ 11.3 (화) 2박 3일

범어사 선문화관 강당

대상 승가 (비구, 비구니)



11월 1일 (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2시 - 4시

11월 2일 (월)
오전 10시 - 12시
오후 2시 - 4시

11월 3일 (화)
오후 2시 - 4시

※11월 3일은 오전 수업이 없습니다.

문의 051-508-0102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051-508-3122 범어사 종무소

교재비 5만원
(부산은행 101-2091-9658-01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사전신청 선착순 300명
※신청접수시. 교재비 입금 후, 문의처로 접수 확인부탁드립니다.